http://dx.doi.org/10.15686/FKL.46.0.8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과 '효녀' 서사의 재창조

- 심청이가 쓰는 아시아 지중해사

이태숙*

차례

1. 서론
2. 조공무역에서 개항으로
  2.1. '팔려가는 딸'과 아편전쟁
  2.2. '용궁'과 해항도시의 몰락
3. '효'의 패러다임에서 구원의 서사로
  3.1. 노인잔치에서 기아 보소호로
  3.2.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용궁'의 재생
4. 결론

〈국문초록〉

황석영의 『심청』은 작가가 고전 <심청전>의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내놓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전 <심청전>과 출발점으로서의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작품 내 공간을 조선에서 아시아 지중해라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심청』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공간 영역 확장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미시사의 관점에서 심청이 만들어내는 인적 이동의 기능적 의미를 규명하고 전통서사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재창조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시기 아시아 지중해는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었으며,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격변을 만나는 난징, 싱가포르와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에 맞서는 지룽, 류큐, 조선으로 나눌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육교수

수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대응력에 따라 각 지역이 맞아야 하는 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고전 <심청전>의 '효'의 이데올로기를 개인적 구원의 서사에서 미래를 향한 구원의 약속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심청』은 심청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이면서 열다섯에 떠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효'의 공간, 조선에 대한 구원의 서사가 된다.

핵심어 : 심청전, 아시아지중해, 조공무역, 조약무역, 효 이데올로기, 효녀, 구원의 서사, 개항, 해항도시

1. 서론

황석영의 『심청』은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아시아적 공간으로 문화적 패러다임을 확장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심청'으로 대표되는 가치로서의 '효'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분석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 작품은 '팔려가는 딸'이라는 고전 <심청전>의 일부 요소만 남아 있을 뿐, 전통적 '효'의 바탕으로서의 개안하는 심봉사는 첫 장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고전 <심청전>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서사의 차이가 어떤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황석영의 『심청』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세기는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아시아 지중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공간의 정치적, 상업적 의미가 문화적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은 단순히 한 지역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국지적 공간과 연계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일련의 '해항 도시학' 연구의 바탕(시작점)이 되고 있다. '해항 도시학'에서는 한 지역의 사건을 동아시아 전역의 사회적

사건과 연동해서 고찰하는 시점을 중시한다. 즉 한 지역의 내부구조가 동아시아의 사건에 연동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지역의 사건이 동아시아 전체에 연동해 있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가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권역이 폭주(輻輳)적으로 누적되는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생각하는 시점을 요구하고 있다.[1] 유교적 효의 패러다임 안에서 고찰되었던 전통 서사가 아시아적 가치의 변화의 과정과 연계된다면 그러한 분석의 결과, 어떤 새로운 가치가 도출될 수 있는가가 이 연구의 중심과제가 된다. 중요한 점은 고전 <심청전>의 시대적 배경이 황석영의 『심청』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심청』은 <심청전> 다시 쓰기를 넘어서는 전통서사로서의 <심청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지중해의 개념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쇼텐 햄머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논의를 주목해야 한다. 2007년 11월 뮌헨대학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중해' 주제의 학회는 문화, 상업, 인간이주의 해상운송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2] 이러한 흐름들이 유럽의 지중해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관점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일련의 연구들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 루트가 조공무역의 중심이었다면 인도양과 남아시아 중심의 해상무역 루트는 일찍이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개척되었고, 이후 유럽인들에 의한 상업무역으로 대체되게 된다.[3] 19세기 동아시아 지중해는 이들 유럽인들에 의한 상업무역이 이 지역의 패러다임을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바꾸면서 이 공간의 삶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

1) 사사키 마모루, 「해항도시-해항 도시문화학의 창성-새로운 동아시아론의 구축을 향해서」, 『해양문화학』 1권, 한국해양문화학회, 2005, 139쪽.

2) Angela Schottenhammer ed.,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 of Culture, Commerce and Human Migration,*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08, pp.1~3.

3) John Chaffee, "Muslim Merchants ans Quanzhou in the Late Yuan-Early Ming: Conjectures on the Ending of the Medieval Muslim Trade Diaspora", *ibid.*, pp.115~116.

『심청』은 1998년 황석영이 오 년의 영어 생활 끝에 문단으로 복귀한 후, 『오래된 정원』과 『손님』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장편이다. 기존의 황석영의 『심청』에 대한 연구는 전통 서사로서의 <심청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황석영은 작가 후기에서 자신의 작품 『심청』을 '매춘의 오딧세이아'라고 지칭했는데, 서영채는 이러한 작가의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효녀 심청이 '창녀 심청'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세 개의 진혼제'의 형식이라 분석하였다. 그는 『심청』의 진혼제는 '심청'에 대한 진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팔려간 딸들에 대한 진혼제라고 보고 있다.[4] 이러한 연구는 고전 '심청전'의 '효'의 관념이 제거된 황석영의 '심청'을 분석 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황석영의 '심청'이 제기하고 있는 시공간적 특징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의미를 규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심청』을 채만식, 최인훈, 황석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패러디와의 연관성하에서 분석한 경우, 황석영의 『심청』을 불교적 이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심청』의 가장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중해와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개항기가 가지는 맥락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5] 기존 연구사에서 배제되었던 시공간의 특징으로서의 동아시아 해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전 <심청전>의 전통서사의 틀을 기반으로 한 전근대의 '효' 패러다임이 근대의 시공간과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가가 황석영의 『심청』이 보여주는 문학적 가치일 것이다. 그것을 '심청'이라는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시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중해의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아시아지중해 지역의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작품

4) 서영채, 「창녀 심청과 세 개의 진혼제; 황석영의 <심청>읽기,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11권,1호, 문학동네, 2005.
5) 김미영, 「심청전의 현재적 변모양상에 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4권 14호, 한중인문학회, 2005.

내적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과 근대적 주체로서의 '심청'의 변모의 과정과 연계되는 양상을 추적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통소설로서의 <심청전>의 '효'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심청』의 아시아지중해 패러다임으로 바꾸게 되는 양상이 밝혀질 것이다.

2. 조공무역에서 개항으로

황해도 황주, 난징, 진장, 지룽, 싱가포르, 류큐에서 나가사키로 주인공이 이동하는 소설 『심청』의 공간은 심청의 서사와 연결되어 진행된다. 황해도 황주는 전근대적인 조공무역의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공간이며, 청이가 팔려 온 중국의 난징에서 진장에 이르는 공간은 그 시기 아편전쟁으로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공간이다. 타이페이의 지룽은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이행하지 못하지만 독자적인 지중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던 공간이었고, 청이가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고전 <심청전>의 '용궁'이 류큐로 설정된 것은 작가가 부여하는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가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류큐는 조약무역의 시대로 들어가지 못한 전 근대 공간이 제국주의에 의해 훼손되는 상황을 보여주며, 청이의 서사가 원형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각각의 공간들은 아시아 지중해라는 공간적 특징과 함께 기능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공간들을 지나면서 '심청'의 주체는 변화하게 된다.

2.1. '팔려가는 딸'과 아편전쟁

청이가 난징 진대인의 동첩으로 팔려온 3년 후인 1840년 6월에 제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난다. 아편전쟁은 주지하다시피 세계사적 관점에서 아시안 지중해가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다. 청이가 팔려오기 전 조선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품 내에서 이러한 조선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청이가 팔려온 1837년은 1800년에서 1863년에 이르는 세도정치의 중심 시기였고, 풍양 조씨의 세도정치 하에서 정치적 탄압을 위해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다. 기해박해에서 처형된 프랑스 신부는 당시 개항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던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조선이 쇄국으로 가면서 세계사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고전 <심청전>의 시대적 배경 역시 이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황석영의 『심청』과 고전 <심청전>은 명백하게 시대적 패러다임이 같은 바탕에 놓인 작품이며,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은 황석영의 『심청』뿐만 아니라 고전 <심청전>의 분석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6] 이 작품의 말미에서 1910년 한일합방 후 청이가 제물포로 돌아오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되는 것을 본다면 『심청』은 거대한 동아시아 지중해의 패러다임을 한 인물을 통해 읽어내고 있는 작품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심청』의 공간적 배경이 동아시아 지중해라면 『심청』의 시간적 배경은 동아시아 지중해가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에서는 풍양 조 씨의 세도정치 하에 기해박해가 일어나면서 개항으로의 아시아적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더 굳게 빗장을 거는 형세가 강고해지던 시기이다. 열다섯의 청이가 청나라 진대인의 동첩으로 팔려 진장으로 가야했고. 일 년 만에 진 대인이 급사하면서 청이는 진장의 화지아가 되고, 첫 번째 아편전쟁을 맞게 된다. 기나긴 방랑 끝에 말년의 청이가 70년 만에 돌아온 조선은 길고 긴 동아시아 개항의

6) 고전 <심청전>의 형성연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다만 조수삼(趙秀三, 1762~ 1847)의 추재집(秋齋集)에 전기수(傳奇叟)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청전 , 숙향전 , 소대성전 , 설인귀전 등을 읽어주고 돈을 받았다." 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18세기 이전으로 추정하지만 고소설이 성행하였던 시기가 18~19세기임을 감안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운식, 「<심청전>관련 설화의 전승 양상과 성격」, 『敎員敎育』 23권 4호, 2007, 29쪽을 참조할 수 있다.

패러다임이 조선에서 한일합방으로 결말짓게 되던 시기이다. 황석영의 『심청』은 개항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중해의 길고 긴, 그리고 슬픈 역사를 팔려간 딸의 관점에서 되짚어내고 있는 서사이다.[7]

청이가 중국에 온 지 3년째, 진장의 복락루로 온 지는 2년 째 되던 해에 일어난 제1차 아편전쟁(1840~42)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 동아시아 지중해 질서 운영의 원리가 조공에서 조약으로 바뀌고, 청나라가 해금정책을 폐지하여 극도로 제한됐던 국교와 교역 및 인적 왕래가 개방되게 된다. 조공체제는 상·하국 간의 의례를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데 비해 조약체제는 국제법상 대등한 국가들 간의 조약에 의거해 성립되고 유지된다. 이를 대외교역 면에서 보면 전자는 극히 제한된 무역만을 전제하는 데 비해 후자는 자유무역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조약체제는 서양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제였던 셈이다.

하지만 1644년에 개국한 청은 이미 개항을 한 상태였다. 1684년에는 다섯 개의 항구를 개방하여 대외무역을 합법화하였고, 1757년(건륭22년)에는 광저우(廣州) 한 곳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특허 상인에게만 대외교역을 독점적으로 허가하는 공행(公行) 제도를 실시하여, 관리형 교역체제(Canton system)를 정비하였다.[8] 1833년까지 200여 년 동안 서구와 중국 사이의 무역을 주도한 것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였다. 18세기 말 이 회사는 청의 대(對)유럽 수출 총량의 70%, 유럽 수입 총량의 90%를 취급하였다. 1711년~1720년 사이 영국 동인도회사의 중국차 수입량은 264만 파운드 가량이었으나, 1801년~1810년에는 약 2억 4,044만 파운드로 90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영국의 특산품인 모직물은 중국에서 수요

7) 작품의 말미에서 심청의 나이가 70이 되었다고 한 것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 팔려온 지 3년 만에 진장에서 제1차 아편전쟁(1940~42)을 맞았으니 1837년에 팔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1837년에 제물포를 떠날 때의 나이가 15세였으니 1912년에 돌아왔다면 90세여야 맞다.

8) 강진아, 「동아시아의 개항; 난징조약에서 강화도 조약까지」, 『현대사광장』 7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57쪽.

가 없었으므로, 차의 대가로 엄청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은의 유입으로 18세기 후반부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중국은 미증유의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19세기 들어서 청의 무역거래에서 일어난 큰 전환은 우선 대외무역이 항상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과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청이를 동첩으로 들인 난징의 진대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차 재배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뒤이어 차 재배를 하는 첫째 유안(元), 차의 무역을 하는 둘째 아들 춘(準)과 형들처럼 전시대의 거래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아편거래와 매춘까지 겸업하는 셋째아들 구앙(光)으로 나뉜다. 청이를 데리고 진장의 기루로 오는 셋째 아들 구앙은 아버지나 형들 이후의 중국 신세대를 대변한다. 차 산업으로 부를 축적하던 이전 세대에서 아편거래로 조약의 시대로 들어서야 하는 격변하는 중국의 개항세대인 것이다. 청이가 구앙을 따라 진장의 기루로 오는 것은 진대인이 급사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청이가 풀어내는 서사가 동아시아 지중해의 패러다임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난징은 북경, 서안, 낙양과 함께 중국의 4대 고도(古都)이다. 14세기(1368)에 주원장이 궁궐을 짓고 수도로 삼은 이후 난징은 세계무역 루트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다. 청이 난징으로 팔려와 진장에서 지룽을 거쳐 싱가포르로 팔려가는 경로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무역루트가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지중해에서 중화주의적 조공체제의 변화는 영국과 관련되어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시대에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나던 상황에서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인도에서 아편을 중국에 가져가 팔고 그 결제 대금으로 수입차의 지불을 상쇄하는 삼각무역을 경영하게 된다. 영국 면업이 확대 발전할수록 아편무역의 수익은 커져야했다. 아편무역이 없으면 산업혁명중의 영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도 굴러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조가 아편 매매를 중단시키려 했을 때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아편은 이미 1729년(옹정 9년)에 공식적으로 청조가 재배와 수입을 금지시킨

품목이었으나, 19세기 초반 매년 200상자(1상자=63.5kg) 가량 수입되던 아편은 아편전쟁 직전인 1839년에는 4만 상자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거의 40만 명의 공급분에 해당했다. 1826년을 전환점으로 은 유출량이 은 유입량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300여 년간 지속되던 영국의 대중국 무역역조가 뒤집혔다. 이제 난징조약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중화주의적 조공체제가 아닌 낯선 조약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난징조약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지만 조선은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고 있었다.

청과 달리 조선에서의 개항은 더 어려웠다. 조선에 단순한 표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양선이 접근해 오기 시작한 것은 순조이후부터이다.[9] 1816년 에머스트 경의 영국 이양선이 접근 하면서 드러났던 이양선의 접근에 대한 조정의 대처과정은 당시 조선의 개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에머스트 경과 함께 조선을 찾았던 홀의 기록에서는 이양선을 대하는 조선백성들의 태도가 무척 위협적이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이양선이 접근하면 관리들의 문책으로 백성과 해당관헌이 고생을 벗어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적고 있다. 영국 이양선의 접근 후 처리 과정에서도 문정과정에서 첨사가 문책되고 백성들이 처벌되는 결과를 낳았다.[10] 이양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해당 고을의 관원을 문책하는 것 이상의 조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양선을 '원잡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원잡이'라는 명칭이 당시 조선의 개항에 대한 정책과 양민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상징적 언어임을 보여주고 있다.[11] 이미 동서교류라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후퇴하고 있던 조선이 청이가 돌아가는 70년 후에 한일합병이라는 망국의 시

9) 효종 때의 하멜의 표류이후부터 1845년 헌종 때까지 14번의 이양선 출몰과정에 대해서는 김혜민,「순조.헌종 대 서양 이양선 출몰에 대한 조선조정의 대응과 그 역사적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8, 38~39쪽 표 참조.

10) 위의 글, 43~44쪽.

11) 사를르 달레저, 안응렬 역,『韓國天主敎會史』下,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앞의 글에서 재인용. 65~66쪽.

간으로 들어설 것임을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2.2. ‘용궁’과 해항도시의 몰락

황석영이 심청의 ‘용궁’을 류큐로 설정한 것은 류큐가 조선과 비슷한 조공무역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이던 것이 이유일 것이다. 류큐는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일본과 중국간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던 나라이다. 류큐가 조약무역 이전 동북아 해역의 조공무역을 기반으로 번영을 누렸으나 이후 조약무역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은 조선의 상황과 유사하다. 물론 철저한 쇄국을 견지했던 조선과 활발한 개항을 통해 물류의 중심이 되었던 류큐는 차이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국교가 없었고, 조선과만 쓰시마(大馬)를 매개로 한 무역과 통신사 파견을 통해 공식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통신사 파견은 181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서세동점의 시대로 접어드는 19세기 중반에는 양국간에 공식적 사절 파견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류큐는 지리상의 이점과 조공무역을 기반으로 한 중계무역으로 조공무역 시기의 아시아 지중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조약무역의 시기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체적 국가 정체성이 요구되었다. 류큐가 타이완이나 조선처럼 일본의 침략 야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대국가로의 지향성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약무역의 시기에서 중요한 ‘속국’, ‘속방’의 뜻은 서구적 개념에서 볼 때 주권을 제한 받은 보호국이나 종속국의 의미가 아니었다. 사실 서구에서조차도 19세기말까지 주권개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단계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19세기에 들어와 부탄, 베트남을 침략할 때, 또 프랑스와 미국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직전에 조선에 군사행동을 시도할 때 서구 열강은 사전에 반드시 청에게 종주권의 유무를 묻고 그것이 유사시 청이 군사개입을 하는 관계인지 타진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은 ‘속국자주’를 이

유로 내정과 외교는 속국이 알아서 하므로 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서양과의 충돌을 간접적으로 회피했고, 열강은 그러면 이는 서구적 관점에서 독립국가임으로 청의 개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 행동에 나섰다. 일본이 류큐를 합병하기 위해 먼저 타이완 파병을 통해 류큐민의 관할권이 일본에 있음을 청에게 과시하고 이어 1875년 류큐 왕에게 청에 대한 조공과 책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것은 이러한 서구 학습의 결과였다. 이에 반발해 류큐 왕이 끝까지 조공을 중단 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절을 청에 밀파했던 것이 1876년 12월의 일이다.[12] 서양인과의 충돌 속에서 류큐는 만국공법을 기본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류큐 왕국이 새로운 질서체계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 중국-류큐-사쓰마번의 관계가 '서양/중국-류큐-사쓰마번'의 관계로 단순 적용되지 못하고 중화(조공-책봉)와 조약(만국공법)의 두 세계의 국제질서가 상충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조법(祖法)에 근거하여 기존의 국제관계(통신국, 통상국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류큐가 조약시대로의 전환 하는 것은 불가피했다.[13] 청나라와 일본과의 중간자로서 조공무역의 과실을 누려왔던 류큐가 주권을 잃고 일본에 병합되는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난징, 단수이, 싱가포르가 상업자본으로서 동인도회사에 의해 조약무역의 시대로 들어섰다면, 류큐는 조공무역에서 일본에 의한 병합으로 조약무역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차이가 있다. 조일수호조규에서 일본의 류큐병합이 그대로 전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조공무역에서 개항으로 아시안 지중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은 이제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항도시의 개념을 통해 공간을 규명한다는 것은, 아시아를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해항도시를 통해서 그리고 지리적이거나 정

12) 강진아, 앞의 글, 58,62,65,78~79쪽.
13) 장혜진, 「19세기 중반 근세 류큐왕국의 주체성과 저항-'목지은하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동양사학회, 2018.2, 90쪽.

치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변하는 것이다. 프랑스 아날학파의 관점에서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필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에서 제기한 전체 역사관과 해양인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역사관을 만들었다.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은 이러한 브로델의 지중해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시아로 확장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던 대만의 경우가 오히려 해양문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14] 청이가 '팔려온 딸', '효녀'라는 고전 <심청전>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주체적 자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공간이 대만의 지룽이 되는 것은 작가가 읽어내고 있는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이 독자성을 가지고 형성되는 공간이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일본과 중국 간의 주요 교역지가 되었던 류큐 섬의 수도 나하, 오사카 만에 위치한 일본의 항시 사카이, 그리고 1661년부터 1683년까지의 강력한 상인가문인 정씨 지배하의 타이완 등, 아시아의 해항도시가 사회 경제적인 자율성이나 헤게모니를 가졌던 이 시기는 서양 제국주의의 도래와 함께 위축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근대 국가 및 국민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된다.[15] 청이가 쇄국하의 조선에서 아편전쟁으로 조약무역의 시대로 들어가는 청나라, 그리고 대만과 싱가포르를 거쳐 조약무역의 시대에 근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일본의 속국이 되어 버린 류큐의 왕비가

14) 曹永和 (1920-2014.대만 중앙연구원 원사)는 1990년 '臺灣島史'라는 개념을 학계에 제안할 때, 대만사의 해양성 특색을 강조하면서 대만은 일종의 해양문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영화의 대만도사의 관점에서는 토지와 도서와 해양에서 출발해 모든 생물족 군과 이곳 토지가 상호작용한 것이 대만의 역사라고 본 것이다. 대만은 해양과 외부와 각종 관계를 맺었으며 세계조류와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았기에 이를 드러내는 것이 대만역사의 진면목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현, 「해양을 통해 본 대만사-대만학계의 연구현황을 중심으로」,『역사와경계』98호, 부산경남사학회, 2016.3, 165~166쪽.

15) 노영순, 「아시아의 지중해;12세기~21세기 중국, 일본, 동남아 해항도시와 교역네트워크」,『해항도시문화교섭학』8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3.4, 353쪽.

되어 전통서사의 '용궁'을 재현하는 과정은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전통서사를 재창조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고전 <심청전>에서 '용궁'은 심청의 '구원'과 '재생'의 공간이었지만, 『심청』의 '용궁'으로 설정된 류큐는 '재생'의 공간이 되는 듯 했지만 '구원'의 공간이 되지는 못한다. 아시아 지중해의 공간은 조약무역의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독자성을 형성하거나 몰락하며 새로운 공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심청』의 서사는 이러한 아시아 지중해의 시대적 변화의 과정과 궤적을 같이하고 있으며 '심청'의 근대적 주체는 이러한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3. '효'의 패러다임에서 구원의 서사로

3.1. 노인잔치에서 기아 보소호로

바흐친은 민속적 크로노토프에 관해 논하면서 '시간의 역전현상'에 대해 이야기 한다. '시간의 역전현상'은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하여 진행되고 미래 위에 투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민속적 크로노토프에서는 그와 반대로 관념화된 옛날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바흐친은 이러한 '시간의 역전현상이 신화론적 세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민속적 크로노토프의 재현을 위한 것이라 보았다. 바흐친의 관점에서 민속적 전통은 사실주의를 위한 훌륭한 산실이라 보았으며 그 예로 라블레의 작품을 들었다. 라블레의 작품은 모든 민속적 요소들이 수렴되는 대표적 작품인 것이다.[16] 고전 <심청전>의 다시 쓰기 역시 고전의 가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바흐친적 관점에서 볼 때, 민속적 크로노토프를 가져오는 것은 새로운 작품이 배경으로

16)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 1988, 334~340쪽.

하고 있는 시공간의 사실적 재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황석영의 『심청』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민속적 크로노토프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

고전 <심청전>의 배경설화는 주요서사의 구성요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심청의 출생과 관련한 태몽(胎夢) 설화이다. 두 번째는 심청의 성장과 효행과 관련된 효행 설화,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이며, 세 번째는 심청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과 관련된 재생(再生) 설화, 그리고 네 번째로 심청의 아버지 만남과 아버지의 눈 뜨기와 관련된 개안(開眼) 설화로 분류할 수 있다.[17] 황석영의 『심청』에는 이 중 '태몽설화'와 변형된 '인신공희' 설화가 수용되어 있다. 제물포에서 배에 탄 이후는 작가에 의해 사실적으로 변형된 작품이므로 '제물포' 이전과 '제물포' 이후로 공간의 사실성이 현저하게 구별된다. 청이가 70년 후 다시 제물포로 돌아간 후 마지막 장면[18]에서 '관음보살'의 이야기가 추가되는 것은 제물포(조선)와 아시아적 지중해 공간의 사실성이 분리되어 인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사의 시작 부분에서 태몽설화로 제시되었던 '관음보살'의 이야기가 마지막 죽음 장면에서 '관음의 화신'에 관한 아포리아로 끝나는 것은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에서 조선이 벗어나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이다.

심청을 중심으로 고전 <심청전>을 본다면 심청은 '인신공희'와 '재생'을 통해 삶을 완성하고 있다. 황석영의 『심청』 또한 심청의 시점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신공희'와 '재생'은 가장 중요한 민속적 크로노토프가 된다. 『심청』의 첫 장면에서 태몽담이 관음보살의 현신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면을 보자. "지금 세상에 남녀 상열지사가 심히 어지로우매 그것 또한 보살인 너의 죄이니라. 너는 가서 여자로 현신하여 세간을 깨우치라."(…)"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남해관음(南海觀音)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 인간으로 정배하여 댁으로 내려올 제 제불보살 석가님이

17) 고전 <심청전>의 배경설화에 대해서는 최운식, 앞의 글을 참조, 21~33쪽.
18) 『심청』 하권, 306~307쪽.

온 몸을 던져 세상을 공양하라 하셨으니 부디 받아주옵시고 어여삐 여기소서."[19] 심청의 태몽 자체가 '효'가 아닌 몸(매춘)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태몽을 통하여 예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심청이 관음의 현신임은 작품의 주요 장면마다 등장하고 마지막의 죽음 장면까지 연결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심청의 죽음과 함께 다시 등장한 관음은 그러한 구원의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가졌던가에 대해 다시 묻고 있다. 하지만 구원을 향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실컷 울고 난 사람의 웃음"[20]과 같은 아포리아로 제시되고 있다.

서세동점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19세기 초반에 조선이 천주교와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이양선을 배척하면서 쇄국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심청의 비극이 우연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닌 조선 자체의 비극일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는 것이다. 심청의 비극이 '효'의 패러다임이 아닌 구원의 서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심청』의 구원은 '심청' 개인에 대한 구원을 넘어서는 한 시대에 대한 구원이 되어야 한다. 고전 <심청전>에서 심청의 자기희생을 통하여 얻은 '효'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것을 넘어서서 보편가치의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면 동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에서의 자기희생은 심청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시대의 구원의 서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원의 서사를 배제한다면 새로운 『심청』은 매춘의 오딧세이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수반하지 않는 미래에의 지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되는 갇힌 미로일 뿐이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통해 미래를 구원할 수는 있었다. 류큐에서 청이가 열었던 '노인잔치'가 고전 <심청전>의 '맹인잔치'를 연상하게 하지만, 전통 개념으로서의 '효'와 연결되기보다는 무너져가는 왕국(용궁) '류큐'를 되살리려는 것이었다. 사쓰마번에 대항하여 류큐의 자주권을 되살리려는 가즈토시의 노력은 '노인잔치'를 통해 밑바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

19) 『심청』 상권, 14쪽.
20) 『심청』 하권, 307쪽.

다. 이러한 노력은 가즈토시의 죽음과 류큐의 몰락이라는 결말로 이어지지만, '효'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심청의 구원의 서사는 고아들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심청이 싱가포르에서 고아원인 小宝園과 나가사키에서 기아보호소를 연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에의 구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보원이나 기아보호소의 아이들이 여러 인종의 혼혈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닫힌 세계를 열 가능성을 다양한 세계의 융합에서 찾고자 하는 심청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드러난다.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이 국가적 한계를 벗어나는 국소지역간의 연대와 망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의미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미래에의 가능성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사오싱의 산골마을에서 여섯 동생을 위해 입 하나 덜고 돈이라도 벌려고 하녀로 나왔다가 인신매매된 링링은 타이완 지룽에 매춘부로 팔려 와서야 쌀밥을 처음 먹어 본 사람이다.[21] 매춘부였던 링링과 카지아 차밭의 노동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유자오를 거두며, 청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자신을 생각한다. 싱가포르에 소보원을 열게 된 것도 바로 유자오를 통해 생겨난 모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전통서사에서 '효'를 실천하고자 했던 효녀의 '노인잔치'가 싱가포르의 '소보원'과 나가사키의 '고아의 기아보호소'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은 주체적 서사가 공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정체성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전통서사를 재창조한다.

3.2.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용궁'의 재생

영국 동인도회사의 싱가포르 지역 부지사장 제임스와 동거 계약을 하고 청이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계약의 세계는 '시계'와 '거꾸로 매달린 사내'의 세계이다. 청이의 인간관계가 마음이나 인신매매에 의해서가 아닌 계약으로 맺어지게 되는 관계의 시작을 알려주는 상징물이다. 싱가포

21) 위의 책, 194,234쪽.

르에서 제임스의 집사인 허푸가 처음 청이를 만나 그녀에게 준 것이 시계이다, 허푸는 청이에게 시계를 주며 '시간은 돈'이라고 알려준다.

> "저희는 시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주인님이 식사하는 때와 회사에 나가는 때를 알아야 하고, 점심 자시러 집에 돌아올 때와 저녁에 귀가하실 때가 정해져 있거든요."(…)
>
> "싱가포르에선 모두 그렇게들 살아요?"
>
> 아마는 진지하고 확실하게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
> "중심가의 상점이나 부두에서나 시장에서까지 모두요."[22]

삶이 시간에 의해 움직이는 서양의 세계는 청이가 난징이나 지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였다. 정확하게 여섯시 오 분이 되면 퇴근하는 제임스는 그러한 시계와 문명의 세계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청이는 "십자로 엇갈린 나무 위에 웬 벌거숭이 사내가 양팔을 벌리고 매달려 있는 끔직한 목각의 형상"[23]도 만나게 된다. 이 '매달린 사내'와 '시계'는 조약의 세계로 청이가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제임스와 청이의 동거 관계나, 하인들과의 관계, 일상의 삶이 모두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제임스의 세계이다. 하지만 청이는 계약과 조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러한 세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이가 제임스를 자명종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러한 세계에 대한 청이의 생각이 나타난다. 청이가 정처(正妻)로 삼겠다는 제임스의 요구를 거절하고 단수이로 돌아갈 결심을 하자 중국인 집사 허푸는 이렇게 말한다.

> "그야...우리는 모두 장사꾼들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신용을 지키는 대신에 야박하지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돈도 벌고 발전했어요."
>
> 이에 대해 청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그전 세상이 훨씬 좋답니다."

22) 위의 책, 14~15쪽.
23) 위의 책, 17쪽.

허푸가 나직하게 웃었다.

"그건 나두 마찬가지요. 그렇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24]

일찍이 동아시아 지중해를 장악했던 무슬림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가 이 지역에 진출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 영국 동인도회사는 조호루 왕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구조차권을 얻어 낸다. 이로써 엘리자베스 여왕령에 의해 1600년 공식적으로 설립된 이후 250년 동안 동인도회사는 영국의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가장 큰 주식회사로서 영국의 식민지와 제국체제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25] 동인도회사의 독점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1813년 동인도회사에 의한 인도독점무역의 폐지 이후이다. 캘커타와 봄베이에 다수의 사무역 상사가 설립되어 대중국무역을 담당할 수 있었고, 이들의 압력으로 20년 후인 1833년 8월 28일 동인도회사의 중국무역독점, 이른바 사무역 독점이 민간에게까지 개방되었던 것이다. 청이가 제임스를 따라 싱가포르로 간 시기는 바로 동인도회사의 독점이 깨어지고 자유무역상인에 의해 거래가 확산되고 있던 시점이었다.[26] 계약과 조약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고 쇄국을 견지하던 조선처럼 청이는 제임스와의 계약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단수이로 돌아온다. 그가 선택한 것은 조공무역시기 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에 있었던 류큐였다. 청이가 제임스를 떠나 류큐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청이의 남은 시간이, 그리고 조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류큐의 '마키시온가(牧志恩河)사건'[27]은 실제 류큐 근대사에서 류큐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면서 청이의 류큐에서의 서사의 중심이다. 청이가 15

24) 위의 책, 59쪽.
25) 동인도 회사의 대외무역 독점에 대해서는 신윤길, 「영국의 대외무역과 동인도회사 연구」, 『서양사학연구』 제10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04.6.
26) 신윤길, 「아시아 바다에서의 영국 자유상인 연구」, 『서양사학연구』 제15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06.12, 34쪽.
27) 장혜진, 앞의 글, 91~95쪽.

년 동안 이동한 동아시아 지중해 공간은 난징에서 싱가포르, 류큐까지 그 영역이 광활하지만 작품 내적 서사의 비중에서는 류큐가 압도적이다. 내용상의 비중뿐만 아니라 청이의 용궁에서의 '재생'이라는 민속적 크로노토프의 중심서사에 류큐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서사에서 류큐가 중요한 이유는 청이의 '재생'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에서도 류큐는 국가간 무역의 중심에 놓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류큐는 조공무역의 시대에 임진왜란 이후 교류가 끊어진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조선의 중간 역할을 하며 동북아 해상무역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였다. 제임스와 헤어지고 지룽을 떠난 청이가 도착한 곳이 류큐의 나하이며, 여기에서 '용궁'이란 주점을 열고, 우에즈인 가즈토시를 만나 류큐의 왕비가 된다. 류큐는 조공무역의 시대에 동북아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지만, 조약무역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에게 침탈을 당하게 된다.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류큐를 병합하는데, 마키시온가 사건은 미국과의 개항을 빌미삼아 류큐가 일본의 탄압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류큐에서 『심청』의 서사의 중심이 되는데,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들어서는 시기의 류큐가 제국주의 침략 야욕을 지닌 일본에 의해 병합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며, '용궁'의 상징으로서의 류큐의 우에즈와 결혼한 청이가 현실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마키시온가 사건은 동아시아 지중해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1874년 일본은 타이완 출병[28]을 통해 동아시아 지중해 지역에서의 조공무역의 종말과 청의 지배권 상실을 확인하고 류큐를 병합한다. 이 사건이 류큐에 그치지 않고 조선과 연결되는 것은 류큐와 조선이 동일한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푸젠순무(福建巡撫)였던 丁日昌은 상소문에서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양은 타국을 멸망시킨 사례가 없다'고 호소한다.[29] 격변하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흐름에

28) 오카모토 다카시, 홍미화 역,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청일수호조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2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6, 98쪽.
29) 위의 글, 96쪽.

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흐름에 대한 정일창과 같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또 다른 류큐가 되지 않게 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류큐와 조선의 차이라면 류큐는 국가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개항을 위해 노력했던 반면, 조선은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심청』에서는 이 사건으로 청이와 혼인한 우에즈인 가즈토시가 죽임을 당하고, 청이는 류큐를 떠나 나가사키로 가야했다.[30] 난징, 단수이, 싱가포르와 류큐의 차이라면 난징, 단수이, 싱가포르는 상업자본이며 동인도회사와 연관되어 있었다면, 류큐의 운명은 조공무역 국가에서 일본에 의한 병합으로 결말지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조일수호조규에서 일본의 류큐 병합은 전례가 되었고, 조선의 미래는 예견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류큐 병합은 해항도시 패러다임이 아시아를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해항도시를 통해서, 그리고 지리적이거나 정치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일본과 중국 간의 주요 교역지가 되었던 류큐 섬의 수도 나하, 오사카 만에 위치한 일본의 항시 사카이, 마지막으로 1661년부터 1683년까지의 강력한 상인가문인 정씨 지배하의 타이완이 이러한 조약무역 시기 아시아 지중해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지역이었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아시아의 해항도시가 사회 경제적인 자율성이나 헤게모니를 가졌던 이 시기는 서양 제국주의의 도래와 함께 위축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근대 국가 및 국민경제가 지배하는 국면 속으로 편입되었다.[31] 마키시온가 사건은 류큐의 '용궁'을 통한 청이의 재생이 현실세계와 만나면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용궁'의 재생은 기아보호소의 고아들을 만남으로서 효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구원의 서사로 완성된다.

열다섯에 황해도 해주를 떠나 두 세대도 더 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

30) 마키시온가사건은 『심청』의 서사가 리얼리티를 획득하는 계기가 된다. 『심청』 하권, 265쪽.
31) 노영순, 앞의 글, 353쪽.

오지만 청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조선의 구시대적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았고,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고자 했던 나라는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의 침략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탓을 하기에 앞서 왜 동아시아 지중해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전략적인 개항으로 나라를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그러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32] 전통서사로서의 '효녀 심청'의 민속적 크로노토프는 해체되고, 아시아 지중해의 패러다임을 시간적 공간적 크로노토프로 설정한 황석영의 『심청』은 '효'의 패러다임을 '구원'의 서사로 바꾸고 있었다. 그러한 구원이 심청뿐만 아니라 조선을 구할 수 있었는가는 청이가 조선으로 돌아오는 회귀의 과정을 통해 모색되고 있었다.

4. 결론

문학은 당대의 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효' 이데올로기의 생성은 삼국시대까지 수렴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서사문학 장르로서 완결되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는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심청전>은 근대이후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33] 그 기나긴 생명력과 연관하여 담론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작품이다. 황석영의 『심청』은 고전 <심청전>의 재창작이면서 그 배경공간을 조선이 아닌 아시아 지중해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효' 이데올로기라는 담론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하는 작품이다. 시간적 배경으로서 <심청전>이 황석영의 『심청』과

32) 타이완의 경우는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제해야 할 것이다.

33) 근대시기 이후 <심청> 이야기의 이데올로기화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지영, 「팔려간 딸에 대한 불편한 기억-1920~1990년 교과서에 실린 <심청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1.

그 시작점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간적 배경이 달라짐으로써 변화하는 담론의 양상은 공간적 배경과 연관하여 논의해야 한다. 기존의 『심청』에 관한 연구들이 전통서사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배경의 차이를 작품 내적 서사, 그리고 담론과 연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시아 지중해' 패러다임은 하나의 공간을 국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의 기능적 흐름을 중심으로 보고자하는 것이다. '심청'이라는 전통서사의 중심인물이 그 공간 안에서 인적 이동의 중심이 되는 이 작품은 따라서 미시사적 관점에서 이 공간을 이해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된다. 작가가 언명하고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매춘의 오딧세이아'라는 관점은 서사의 표면을 드러나게 할 수는 있지만 공간과 연계하여 패러다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읽어내지는 못한다.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시기에 각 지역이 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각의 공간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공간과 만나면서 중심인물의 삶과 생각도 달라진다. 고전 <심청전>의 '효' 패러다임은 작품의 시작부분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청』의 주요서사가 고전 <심청전>의 중요 배경설화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 패러다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심청』은 효녀에 대한 구원의 서사를 넘어서는 '효' 패러다임의 구원의 서사이며, 그러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던 조선이라는 아시아 지중해의 공간에 대한 구원의 서사로 읽어야 할 것이다.

푸코는 『주체의 해석학』에서 '자기 배려'와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타자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대상인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언명한다. 그러나 푸코의 '자기배려'는 더 이상 주체 내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반대로 주체가 모르고 있었고 또 주체 내에 거주하지도 않던 진실로 주체를 무장시키는 것이 관건이다."[34] 즉 푸코가 말하는 유사-주체는 권력의 대상이 되는 것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주체를 위한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에도 저

항하는 주체이다. 근대적인 주체, 자기를 인식하기 위한 주체가 아니라, 그러한 주체가 주체 내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진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체인 것이다.[35] 『심청』의 주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타자성을 거부하고,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정을 통해 '효녀'의 진실을 밝혀낸다. '효녀'로서 길을 떠났지만 기나 긴 여행 후에 다시 돌아 온 청이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버텨왔던 주체이면서 동시에 '효'를 만들어냈던 그 시대와 공간의 진실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왜 그토록 '효' 이데올로기는 강력해야 했으며, 왜 조선은 식민지라는 굴욕의 역사 속으로 걸어가야 했는지를 심청의 외로운 길속에서 우리는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1. 자료

황석영, 『심청』 상, 문학동네, 2003.

_____, 『심청』 하, 문학동네, 2003.

2. 단행본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 1988, 334~340쪽.

미셸 푸코, 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528쪽.

John Chaffee, "Muslim Merchants ans Quanzhou in the Late Yuan-Early Ming: Conjectures on the Ending of the Medieval Muslim Trade Diaspora", Angela Schottenhammer ed., *The East*

34) 미셸 푸코, 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528쪽.

35) 강선형,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8권 4호, 새한철학회, 2014.10, 145쪽.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 of Culture, Commerce and Human Migration,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08, pp.115~116.

Angela Schottenhammer ed.,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 of Culture,Commerce and Human Migration*,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08, pp.1~3.

3. 논문

강선형,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8권 4호, 새한철학회, 2014, 129~148쪽.

강진아, 「동아시아의 개항; 난징조약에서 강화도 조약까지」. 『현대사광장』 7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57,58,62,65,56~82쪽.

김미영, 「심청전의 현재적 변모양상에 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4권 14호, 한중인문학회, 2005, 115~141쪽.

김혜민, 「순조.헌종대 서양 이양선 출몰에 대한 조선조정의 대응과 그 역사적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8, 38~39, 43~44,1~88쪽.

노영순, 「아시아의 지중해;12세기~21세기 중국, 일본, 동남아 해항도시와 교역네트워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8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3, 347~354쪽.

서영채, 「창녀 심청과 세 개의 진혼제; 황석영의 <심청>읽기」, 『문학동네』 11권 1호, 문학동네, 2004, 1~15쪽.

신윤길, 「영국의 대외무역과 동인도회사 연구」, 『서양사학연구』 제10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04, 63~86쪽.

_____, 「아시아 바다에서의 영국 자유상인 연구」, 『서양사학연구』 제15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06, 33~56쪽.

장혜진, 「19세기 중반 근세 류큐왕국의 주체성과 저항-'목지은하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 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동양사학회, 2018.2, 90,81~97쪽.

정지영, 「팔려간 딸에 대한 불편한 기억-1920~1990년 교과서에 실린 <심청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1, 155~187쪽.

조세현, 「해양을 통해 본 대만사-대만학계의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8호, 부산 경남사학회, 2016, 159~208쪽.

최운식, 「<심청전>관련 설화의 전승 양상과 성격」, 『教員教育』 23권 4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7, 21~45쪽.

오카모토 다카시, 홍미화 역,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청일수호조규를 중 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2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63~103쪽.

사사키마모루, 「해항도시-해항도시문화학의 창성-새로운 동아시아론의 구축을 향해서」, 『해양 문화학』 1권, 한국해양문화학회, 2005, 135~144쪽.

Abstract

Asian Mediterranean paradigm and Re-creation of traditional narrative ‘filial daughter’

- Asian Mediterranean Sea has written by Simchung

Lee, Tae-suk

Literature is based on the contemporary discourse. Although the origin of the ‘filial piety’ ideology has a long history of convergence until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i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at it is enjoyed by many people of the contemporary and it became a narrative literary genre. In particular, <*Simchungjeon*> is a work that can discuss the value as a discourse in relation to its long life force in that it has a strong expanding power that continues until the modern era. Hwang Seok-young's <*Simchung*> is a re-creation of the classic <*Simchungjeon*>, and it is a work t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the discourse of ‘filial piety’ ideology in that the background space is extended to Asia Mediterranean rather than Joseon. As for the background, the aspect of the discourse that changes due to the change of the spatial background of <*Simchungjeon*> are similar to that of Hwang Seok-young's <*Simchung*> and its starting point should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spatial background. Despite the fact that studies on the existing <*Simchung*> have been studied with emphasis on the relation with the traditional narrative,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is raised in that the difference of the spatial background can not be linked with the inner narrative and

discourse.

The 'Asian Mediterranean' paradigm seeks not to view one space centered on the nation, but to focus on the functional flow in that space. This work, in which the central character of 'Simchung' is the center of human movement in the space, is therefore the most effective way to understand this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microsociology. The 'Odyssey of prostitution' view, which is revealed on the surface of the work by the author, can reveal the surface of the narrative, but it cannot rea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aradigm in connection with space. At the time when the paradigm of the period changes from tribute trade to treaty trade, each space makes different choic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each region, and the lives and thoughts of the central characters who she had met in such spaces changed Simchung.

Although the 'filial piety paradigm' of the classic <*Simchungjeon*> seems to disappear at the beginning of the work, the filial piety paradigm did not disappear but change. <*Simchung*> should be read as a narrative of salvation of 'filial piety' paradigm beyond the narrative of salvation to 'filial daughter', and as a salvation narrative of the Asian Mediterranean space called Joseon that created such a paradigm.

In Foucault's <*L'Hermeneutique du sujet*>, self-consideration and care for oneself is refused to be the object of the other, and declares that man should exist only for themselves, self-object. However, 'self-consider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finding truth in the subjec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armed with truth which is not in subject. In other words, the quasi-subject that Foucault

speaks not only resists being the object of power, but also the object of reason for rational subject. It is also a subject to resist.

It is not a modern subject, a subject who recognizes oneself, but a subject who makes oneself through the truth that was not found in the subject. After leaving the road as a 'filial daughter', Chung, who came back after a long, long journey, was able to come back with the truth of the time and space in which it created the 'filial piety' at the same time as the subject who survived on her own. We can find out the truth in a lonely way of Simchung why so 'filial piety' ideology should be strong, and why is it that Joseon had to walk into the history of the humiliation of colonialism.

Key words : Simchongjeon, Asia Mediterranean, tribute trade, treaty trade, filial piety ideology, filial daughter, narrative of salvation, sea port city.

■ 본 논문은 2019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